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의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 길을 묻는 이에게

제 788호 현대불교  
2010년 6월 16일(음 5월 5일) 수요일 / 불기 2554년  
법공양 페이지

25

# 망상은 우리가 부처를 이룰 수 있는 근원이자 거름!

### 직장 생활이 힘들어요

☞ 반갑습니다. 사실은 제가 다니는 직장의 상사가 너무 행동도 거칠고 말도 험해서 그로 인해 상처 입은 사람이 많습니다. 저하고도 업무적으로 부딪치다 보니 서로 인성을 높이고 다투게 되었고 그 이후로 서로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다니기가 싫어집니다. 참아야 하는 걸까요?

☞ 내 마음을 먼저 보세요. 내 마음이 '저놈!' 하고 영크러주고 있으면 그쪽에서도 '저놈!' 하고 영크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쪽에서 나쁜 말을 해 왔더라도 '아이, 내가 있는 탓이지. 소가 언덕이 없다면 비빌 수가 있을까. 언덕이 있기 때문에 비졌지.' 그리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나쁘게 생각이 안 듭니다. 모든 게 내 탓으로 돌려지죠. 그럴 때 내 마음이 벌써 그 사람으로 인해서 서로 이렇게 오고 가고 했기 때문에 벌써 인연의 가설이 되는 거죠.

자기가 그런 마음을 먹으면 그쪽에서도, 남편이든지 자식이든지 남이든지 다 그렇습니다. "어보게, 내가 하도 신경질이 나서 괜히 자네보고 이렇게 나쁜 언행을 했는데 참 미안해." 하고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서로 더 절친해집니다. 또 어느 집에서도 자식이 나가서 나쁜 일을 저지르고 싸우고 이래 가지고 학교에서 부모한테 오라 가라 이런 소리를 듣는 다기에 내가 그랬거든요. "자식이라는 가설이 돼 있으니 당신 주인공의 스위치를 눌러도 거기까지 불이 들어올 거고 그 아이의 주인공에 다 맡겨 놔도 당장까지 불이 들어올 거다. 그러니 그렇게 해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전에는 그 자식이 늦게 들어오면 "그래 이놈아, 이렇게 해서 되느냐. 아버지는 별이다 공부시키려고 이렇게 열 쓰고 있는데 뭐 어찌고 어찌고..." 이렇게 말이 많았는데 그 후로는 "애, 이렇게 늦게 들어왔으니 몸인들 지탱하겠나? 밥은 먹었나? 배고프지 않나?" 하고서 좋은 말로 부드럽게 해 주고 웃으면서 과일도 꺾어 주고 밥도 차려 주고 이러면서 기다리고 있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어머니!" 하고, 평소에는 말도 안 하던 사람이 "어머니, 나를 기다리느라고 이렇게 계시



그림 · 최주현

지 마세요. 인제 내일부터 일찍 들어올게요. 어머니, 어머니 모습이 새삼스럽게 이렇게 참 초라해 보입니다." 하면서 그렇게 착해졌답니다.

이런 거를 볼 때 우리가 어떤 억울함이 있고 어떠한 괴로움이 있더라도 거기 맡겨 놓아야 합니다. 맡겨 놓고 '아, 저 사람을 끌고 다니는 주인공이 올바르게 잘 이끌어 가지고 가겠지. 바로 그 길밖에 없으니까.' 하고선 생각을 해 줄 때에 그 사람은 올바른 가게 됩니다.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실전을 해 보고 실패를 해 봐야 체험이 되지, 내 말만 듣고 무효로 돌린다면 그건 또 무효죠. 그러니 내가 알고 가만히 있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알았으면 바

로 돌이 아닌 까닭에 사랑하고 가르치라 이거죠. 그리고 당겨 주고 실전을 같이 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게 쉽지만은 않겠지만 한생각에 달린 거니까 모든 게 내 탓으로 돌리고 공부 재료로 삼아 좀더 성숙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왜 망상을 끊어야 하는지요

☞ 스님, 자주 망상을 하게 돼서 괴롭긴 하지만 또 그 망상 속에서 공부한다고 알고 있는데 왜 망상을 끊어야 한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일반적으로 망상을 끊어야 한다고 그러는데 난 그러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뜻은 그게 아닙니다. 손가락을 이렇게 쳐

들었을 때 손가락만 보지 마시고 그 손가락 하나의 참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그건 손가락이 아닙니다.

그와 같이 망상은 바로 우리가 부처를 이룰 수 있는 근원이고 거름입니다. 그런데 끊어야 한다고요? 끊기는 뭐를 끊습니까. 가서 물을 갖다가 베어 보십시오. 물이 끊어지나. 우리가 지금 마음공부를 하는 것은 폭포수가 내리는 데 틈을 주지 않는 그와 같은 마음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비행기 프로펠러가 돌아가는 데에 거기에 셀 없이 없는 그 도리를, 바로 시간과 공간이 초월된 이 세상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체가 다 물이 아니기 때문에 내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자비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아프면 아픈 대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죠? 어디서 이 아픔이 나온 것

인가? 사람이 글을 읽을 때에 한 번도 백지 생각을 해 보지 않으셨죠? 글자만 풀이하라고 야단법석이지 그 글자가 쓰인 저 종이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지켜보셨습니까? 우리는 지금 시대에 따라서 변천해 가는 이 진리를 타파하고 또 이것을 자기 자신들이 알아야 하는 문제고, 우리가 큰 그릇이라면 큰 그릇으로 쓸 수 있지만 작은 그릇이라면 거기는 작은 물건밖에 못 어깁니다. 그와 같이 우리 마음이 탁 터지고 모두가 물이 아닐 때에 자유재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 고를 당합니까. 왜 뱃 때문예요? 육조 스님이 흥인 선사한테 금강경에 대한 가르침을 듣고 깨달은 것이 거기에 해당됩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여러분한테 바로 이렇게 직결되는 문제죠. 내 자성이 본래 청정한 줄 어찌 알았으리까, 어찌 알았으리까, 어찌 알았으리까. 저 '불(佛)' 자 하나를 말한 겁니다. 저 불 자 하나는 바로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의 근본 책임입니다. 그 책임 아니면 우리가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돌아갈 수가 없다면 자기 먹고 싶은 대로 해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에너지는 바로 여러분한테 지금 있는 것입니다.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광력이나 전력이나, 자력이나, 통신력이 그대로 여러분한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오신통이라는 이 자체가 바로 에너지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오븐이라면 그 속에 넣어서 마음대로 먹고 싶은 대로 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재료입니다. 보는 거 듣는 거, 육근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육친 육식, 이것을 죄다 한데 합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도 이 말 저 말 따르따르 배울 게 없어요. 그 마음이나, 결국은 팔만대장경도 움치고 움치고 돌고 돌아서 마음 심 자 하나입니다. 저 '불(佛)' 자 하나입니다. 그러나 망상 올라오는 것을 잘 지켜 보면서 그 망상이 올라온 그 자리에 다시 그걸 돌려놓는 것으로 수행을 삼아 이 마음 하나를 잘 타파해 보시기 바랍니다.

☞ 26면으로 계속

불기 2554년(2010) 경인년 부처님 오신날  
'소통과 화합으로 함께하는 세상'

## 대한불교조동종 승정위원 주석사찰 두리봉산하 행운사

회주 법공 덕룡  
주지 이룡 행천  
총무 지현

신도일동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삼성리 216번지  
전화 010-9189-3346 / 011-781-0218

## 대한불교조동종 백암산 오도암

법사 정각심  
신도일동

경북 의성군 가음면 순호리 430-1  
전화 054)833-0668  
오도암포교당 호심사  
대구시 동구 검사동 764-9 전화 053)984-0343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 체내 노폐물이 빠져서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동통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속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월빙 02)523-0708

www.chorokwon.com 박현숙 원장

##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천불·삼천불·만불·개금·탱화·금고·범종



지장 보살님



석가모니 부처님



관음 보살님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 성화미술원 내 전시관 : 031)591-1022

• 휴대폰 : 011-302-1022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산 5-27번지  
성화미술원 공작내 불교전시관

주·야  
상담 합니다

청동불 40여부 전시 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전시관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화불교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인터넷에서 검색창에서 [114 도우미] 검색 →  
114 도우미 홈페이지에서 [성화불교전시관] 검색 →  
사진첩 클릭